

“피아니스트가 겪어야 할 고충 처음 겪었던 소중한 무대”

호남예술제 70년

〈4〉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문지영 피아니스트

초등 5년 때 호남예술제 최고상...“예술 꿈나무들 성장 발판 감사”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국제 무대에서 인정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에서 열리는 큰 콩쿠르 ‘호남예술제’에 출전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여수에서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참가했는데, 제대로 손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덜덜 떨며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니스트가 겪어야 할 고충을 처음 겪었던 소중한 순간이죠.”

클래식 콩쿠르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출전하는 부문을 꼽자면 ‘피아노’가 아닌가 싶다. 체르니, 하농을 갖 뎀 새내기부터 나름의 레퍼토리를 준비한 학생들까지... 한 번 완주할 때마다 포도알 한 알씩 색깔하며 실력을 쌓던 ‘예술 꿈나무’들이 동네마다 여럿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로 일정한 경지에 오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건반의 섬세한 눌림, 현의 떨림 등 감각을 오롯이 이해해야 하고, 오선지를 넘어서는 베리에이션과 감정표현까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호남예술제 최고상을 수

상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비르투오소다. 1995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국제무대를 종횡무진하는 터라, 이름은 국제 음악계에 각인돼 있다.

2014년 다카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같은 해 제네바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듬해 펼쳐진 제60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라는 수식어를 거머쥐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와 최근 서면으로 인터뷰를 나눴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연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 호남예술제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70주년 소식에 문 씨는 “한국음악계에서 콩쿠르가 7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굳건히 호남예술제를 이끌며 학생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광주일보사와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연습한들 정작 무대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술가는 온전해질 수 없다. 꿈을 펼쳐나갈 기회이자 예술 축전이던 호남예술제는 나뿐 아니라 후배 예술가에게 도약의 발판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후배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녀지만, 20년 넘게 걸어온 그녀의 예술 여정은 녹록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운영하던 가계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아홉 살부터 피아노를 마련,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2009년 폴란드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에서 1위, 같은 해 8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가운데 예술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아트드림 음악콩쿠르’에서 중등부 대상을 받았다. 2012년에는 독일 에틀링겐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이후 음악계 주목을 받으며 금호문화재단 음악영재로 선발된 뒤 현재중 김대진 교수를 사사했다.

문 씨는 “지역에서 음악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6년 가까이 여수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기반이나 인프라가 열악하지만, 과열된 경쟁구도에서 한 발 비켜서 있기에 “정점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그녀가 크게 빛을 발했던 순간은 2015년 부조니 국제 콩쿠르 피아노 콩쿠르 때. 좀처럼

우승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 경연에서 15년 만에 처음 나온 우승자였고, 아시아 출신으로 처음이었다.

당시 심사 위원장이던 외르크 데무스는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문지영에게서 발견했다”는 호평을 남겼다.

수상자로 결정됐을 때 문 씨는 “믿을 수 없었기에 생각보다 무덤덤했다”며 “아직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기에 수상 이후 연습에 매진해서 기량을 유지하고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답했다.

큰 대회를 여럿 거쳐 왔지만 여전히 호남예술제는 문지영이 음악에 ‘첫 발’을 내딛게 해주 계기였다. 친구들과 손 잡고 출전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음악 인생의 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 요즘도 후배들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음악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순수함과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항상 진심을 다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해 왔어요. 음악이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과 겹쳐져 나의 ‘전부’가 되는 거요. 음악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악가로서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그녀는 ‘환희’와 ‘고통’을 매일 느낀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순간이 삶을 찢는 아픔과도 같지만, “본질적으로 음악적 삶을 살아가기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니스트 문지영

〈photo by Wojciech Grzedzinski·문지영 씨 제공〉

푸르름과 꽃망울... ‘봄 끝에 머문 봄’

황토회 스케치전, 16일까지 진한미술관

봄이 무르익어 주위 풍경이 온통 푸르다. 그러나 봄기운도 잠시 곧 성하의 계절이 다가올 것이다. 달아나라 하는 봄을 붙잡는 것은 인지상정. 그러나 화가들의 붓끝에서는 봄은 여전히 절정이다.

55년 역사를 자랑하는 황토회가 ‘봄 끝에 머문 봄’을 주제로 작품전을 진행 중이다.

진한 미술관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지난 3~4월 현장사색을 통해 그린 작품들이 출품됐다. 크레파스와, 수묵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재료 특유의 감흥이 물씬 배어나온다. 전시 주제가 말해주듯 화가들이 저마다 부려놓은 작품에는 그리고 봄끝에는 봄의 신록과 푸르름, 꽃망울이 소담하게 드리워져 있다.

고희자의 ‘산수유’에는 봄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흑탄의 추위를 뚫고 피어난 노란 꽃잎은 삶의 현장에서 저마다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 선사하는 축하의 선물로 다가온다.

이번 전시에는 강근선, 고영준, 고희자, 김혜자, 신동언, 신동훈, 오행수, 윤정규, 이진표, 정은기, 정철, 추순정 회원이 참가했다.

고희자 회장은 “우리 황토회는 남도의 미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창작을 하고 있다”며 “전시회를 통해 언젠가 눈 깜짝할 사이에 떠나버릴 봄의 정취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토회는 지난 1970년 창립한 지역 서양화가 그룹이다. 명칭대로 황토가 전라도 땅을 상



고희자 작 ‘산수유’

징한데서 불어졌다. 창립회원은 오지호를 비롯해 배동신, 김인규, 최용갑, 김수호, 강동문 등이었으며 목포 미로다방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특히 첫 전시회 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회원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회는 대구 이상화와 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암행어사 출두요~ 변사또를 찾아라”

광주문화재단 ‘PLAY 무등풍류 댄’ ...11일 윤림동 전통문화관

“암행어사 출두요~”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사라진 변사또를 찾아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PLAY 무등풍류 댄 2025’를 연다. 이번 행사 주제는 암행어사, 변사또를 찾아라! 관람객들은 조선시대 마을로 들어간 듯한 역사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암행어사가 탐관오리 변사또를 단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의 절기와 명절,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도사, 떡장수, 소리꾼 등으로 분장한 배우들과 상호작용하며 엮전을 모을 수 있고, 이를 체험활동이나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현장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떡매치기 체험과 함께 인절미·절편 등 전통 간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장포비누 만들기·한지공예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투호놀이·소고놀이·판소리 배우기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 놀이도 준비돼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조선시대 마을을 배경으로 흥겨운 전통음악과 연희 공연이 펼쳐진다. 첫 무대는 광주시 무형유산 농악 종목인 (사)광산 농악보존회의 신명 나는 공연으로, 체험과 공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10일 ‘PLAY 무등풍류 댄’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번 행사의 모든 체험과 공연은 모두 무료이며, 광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PLAY 무등풍류 댄 2025’은 11일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일, 9월 7일, 10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SNS 인증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노희용 재단 대표는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융복합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교훈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예술로 소풍-봄’

문예위 거리축제...10일 나주혁신도시

따스한 햇살 아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웃고 뛰놀며 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축제가 펼쳐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나주시 빚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과 앞마당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축제 ‘예술로 소풍-봄’을 연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축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대표 공연으로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삼양동화-헨젤과 새엄마’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이빨이 아픈 그레텔을 위해 헨젤과 새엄마가 소금치약을 찾아 떠나는 모험담을 담아,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수레 인형극-배고픈’은 배고픈 여우가 우연히 주는 새알에서 태어난 아기새를 사랑하게 되는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밖에도 오감을 자극하는 ‘미술체험 만들기 놀이’, 공굴리기, 굴렁쇠, 림보게임 등 ‘신나는 신체놀이’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머시브 전시극’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정병국 ARKO 위원장은 “ARKO는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예술로 소풍’ 축제가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앞으로도 지역에 서 꾸준히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